



패션모델 못지않은 태극전사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및 2007년 아시안컵 예선 이란전에 나설 대표팀과 한일전을 치를 올림픽 대표팀 축구선수들이 함께 소집 훈련을 시작하는 7일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이천수(왼쪽부터), 최성국, 이강진, 오창진이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형’은 이란, ‘동생’은 일본 책임진다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

‘일본도, 이란도 모두 누르자.’  
 오는 14일 창원에서 일본과 친선경기를 갖는 올림픽축구대표팀과 15일 테헤란에서 이란과 아시안컵축구 예선 최종전을 치르는 축구 국가대표팀 태극전사들이 7일 ‘약속의 땅’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동시 소집됐다.  
 성인 연령대 대표 선수들이 한꺼번에 결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리그 플레이오프와 FA컵 준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FC서울, 수원, 포항, 성남, 전북, 인천, 전남 선수들을 빼고 1차로 들어온 19명은 이날 오후부터 핼 베어백 감독, 홍명보 코치의 지휘 아래 훈련에 돌입했다.  
 한일월드컵과 독일월드컵 멤버들이 대거 빠지면서 그동안 즐겼던 태극호에 탑승해온

선수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얼굴들의 결의는 더 강했다.  
 잔뜩 집을 쟁겨온 최성국(23·울산)은 “아시안게임 결승까지 간다 생각하고 준비해왔다. 각오도, 준비도 다르다. 시즌 막바지라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도 내겐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국가대표와 올림픽대표 양쪽에 다 뽑힌 미드필더 이승현(21·부산)은 “한일

전인데, 이란전인데 뛰게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며 “솔직히 두 군데 다 뛰고 싶다”고 했다.  
 17세 이하 청소년대표 출신으로 3년 만에 파주 트레이닝센터에 돌아왔다는 차세대 공격수 양동현(20·울산)은 “너무 오랜만에 다시 왔는데 꼭 주전을 꿰차서 이 곳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리그에서 6골과 2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한 오창은(21·대구FC)도 “한일전은 중요한 경기다. 나도 한때 일본에 있었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라며 각오를 다졌다.  
 ‘제2의 홍명보’라는 찬사를 들었던 수비수 조영형(23·제주)은 “그동안 대표팀에서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발만 되고 뛰지 못해 속상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이란전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수비수 이강진(20·부산)은 “지난 달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대표 일본-중국전을 봤는데 일본 선수들이 청소년대표 시절에 비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일본만 만나면 200% 실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한국 축구”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日평가전·아시안컵 이란전 대비 어제 동시 소집...본격 훈련 돌입



토고 출신 피터 아데바요르(24)가 지난 6일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연습구장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제공

# “형은 아우만 못했다”

아데바요르 형 전남서 테스트 코치진 ‘조기축구 회원 수준’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토고가 낳은 ‘축구 천재’ 엠마뉴엘 아데바요르(22·아스널)의 집안에선 통하지 않는 말인 듯 하다.  
 아데바요르의 형 피터 아데바요르(24)가 최근 전남드래곤즈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으나 실력이 기대에 못 미쳐 좌절됐다.  
 전남은 토고 1부 리그 ‘AS 두안’에서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피터가 지난 3 시즌동안 75경기에 출전해 41골을 넣었

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피터를 테스트한 허정무 전남 감독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허 감독은 “아데바요르의 형이라는데 관심이 쏠려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 팀에 필 만한 실력을 갖추진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코치진도 “솔직히 한국 조기 축구회원 정도의 실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실 피터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K-리그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동생의 도움으로 토고에서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몰고 다닐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의 한국행은 K리그 진출이라고 보다는 2006독일월드컵 당시 맺은 한국의 지인들을 만나는 목적이 더 컸다고 한다.  
 피터는 이미 전남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수준이 확인된 만큼 다른 팀을 알아볼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인천 꺾고 결승 가자”

오늘 FA컵 축구 준결승전 수원-고양, 서울서 맞대결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울러 국내 성인축구의 최고봉을 가리는 2006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4강에 오른 네 팀 사령탑의 출사표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각자 꿈꾸는 시즌 목표가 다르겠지만 FA컵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 한 장이 걸려있는데다 올해 11 회째를 맞은 이 대회 우승컵이 구단 클럽하우스의 찬란한 전리품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FA컵 준결승전은 수원-국민은행(오후 4시), 인천-전남(오후 7시)의 맞대결로 8일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수원은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오는 12일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지만 FA컵에도 대단한 욕심을 내

고 있다.  
 수원은 2002년 우승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재도전하고 있다.  
 실업축구 N리그 최고 명문팀 국민은행은 4강까지 올라오면서 울산 현대, 광주 상무, 경남FC 등 K-리그 3개팀을 잠재웠다.  
 N리그 팀이 K-리그로 승격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팀도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FA컵 결승에서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전복 현대에 무릎을 꿇은 준우승에 그친 ‘N리그의 한’을 대신 풀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수원과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맞대결을 벌인 적이 없다. 첫 대결치고는 제대로 만났다.  
 인천과 전남은 이미 리그를 마친 마당에 ‘빈 손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지를 수 없다며 칼을 갈고 있다.  
 역대 전적은 전남이 5승4패로 앞선다. 특히 올해는 전남이 세 번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남북 나란히 4강 진출 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

남북한 19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이 아시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4강에 오르며 내년 캐나다에서 열릴 세계청소년(20세 이하)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따냈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지난 6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인도 콜카타 스포츠아카데미에서 열린 호주와

대회 8강전에서 미드필더 송진형(FC서울)의 프리킥 골 두 방으로 2-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4강에 올라 2002년, 2004년에 이어 3회 연속 대회 정상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섰고, 이번 대회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2007 캐나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북한도 7일 오전 방갈로르 스포스 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8강전에서 전 후반 각각 한 골씩을 성공시켜 2-0으로 승리, 4강 진출과 함께 세계대회 출전 티켓을 가져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호나우지뉴★ ‘올해의 선수’

축구선수들 선정...2년 연속 영예

호나우지뉴(26·바르셀로나)가 세계 4만3천여명의 축구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55명의 후보 가운데 2005~2006 시즌을 빛낸 ‘월드 베스트 11’을 투표로 뽑은 결과 호나우지뉴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며 “호나우지뉴가 2년 연속 최다 득표 선수가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나우지뉴는 2년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와 ‘FIFPRO 올해의 선수’를 휩쓸면서 최고의 축구선수로 인정받았다.  
 호나우지뉴는 “너무나 큰 영광이다. 이번 상을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월드 베스트 11’에는 2006 독일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우승의 밑거름이 됐던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과 주장을 맡았던 파비오 칸나바로(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득점기계’ 티에리 앙리(아스날) 및 카카(AC밀란)와 은퇴한 지네딘 지단 등이 선정됐다.  
 또 호나우지뉴의 팀 동료인 리오넬 메시가 지난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도(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영 플레이어 상’을 받았다.

